

# 전주시 도시브랜드 지구촌으로 확산

### 해외어워드 잇따라 우수사례 선정 등

사람을 최우선한 전주시의 각종 정책이 외국도시정부와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해외어워드에서 잇따라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급부상했다.

전주시는 올 한해 글로벌도시가 되기 위해 단순한 국제교류 및 관광홍보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해외정책홍보를 추진한 결과, 정책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해외어워드는 중국 광저우시가 주관한 국제 도시혁신상과 세계지방정부연합과 멕시코시가 공동주최한 '2016 문화21 해외어워드' 등이다.

먼저, 시는 지난 9일 RFID(무선데이터송신장치)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주제로 응모한 '제3회 중국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상'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광저우시는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와 경제, 환경분야 등 전 세계의 성공 혁신사례를 발굴·공유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도시간 공동발전을 도모를 목적으로 2년마다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상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또한 시는 앞서 지난 9월 전 세계 100여 지방정부가 가입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과 멕시코시가 공동주최하는 '2016 문화 21 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시는 28일 시청 강당에서 2016년도 하반기 정년퇴임식을 개최하고, 퇴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번엔 퇴임하는 공무원은 최락휘 前 완산구청장을 비롯한 31명으로, 가족과 선·후배 공무원들의 진심어린 축하를 받았다. /김영재 기자

외어워드'에서도 '전주의 전통문화도시 프로젝트'를 주제로 전주시의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정책을 홍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무분별한 발전이 아닌 도시의 재생에 초점을 맞춰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며, '한옥마을의 전통문화의 생활화, 산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소재복으로 심사위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에 대해 당시 평가심사위원단은 전주시가 제출한 정책에 대해 "경제, 문화, 환경의 차원을 고심하며, 전통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관계를 다룬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높이 평가하고 "특히 다른 여러 활동과 더불어 전문적인 건축양식, 전통문화 관련 특별문화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 등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시는 올해 전주만의 멋과 아름다움이 가미된 관문상징조형물과 아중호수 생태공원 등 도시디자인 성과물로 세계 18개 국가의 컨소시엄 비영리 공익단체인 GPD 재단(Good Public Design Foundation)이 주관하는

국제공공디자인대상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디자인 명품도시로도 인정을 받았다.

전주시 민선식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의 국제교류는 단순 지방정부간 교류를 지양하고, 해외어워드와 국제기구 등을 활용한 우수정책 해외홍보 등 글로벌전주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우수사례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의 지방정부와 정책공유를 통해 다른 도시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재 기자

##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복원 본격 착수

### 시, 단계별·장기적 로드맵 마련키로

전주시가 2017년을 후백제 왕도(王都)로서 전주의 위상을 되살리려는 원년으로 삼고, 후백제 역사문화에 재조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후백제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세부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후삼국 시기 왕도였던 전주의 역사문화를 복원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후백제 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고도(古都)로서 위상을 높이고, 지역민의 자긍심 고양으로 신성장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후백제 관련 사업방향 정립 및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후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 용역을 추진,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을 위한 단계별·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후백제 도성 및 궁성으로 추정되는 물왕열과 기차촌 일원의 후백제 유적 조사를 위한 지하물리탐사도 계획하고 있다.

지하물리탐사는 지하층에 매장된 유구를 레이더 장비를 이용해 탐사하는 것으로, 시는 현재 도시화로 인한 직접적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어려운 관계로 물리탐사 이후 후백제 유적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시는 후백제 역사를 종합적으로 전시·연구·조사하는 기관인 후백제 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관련정부부처와 국회, 정치권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주를 중심으로 한 후백제의 역사를 바로세우고, 후백제 역사문화를 중량감 있는 전주의 대표콘텐츠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을 위해 그간 후백제의 유일한 유적으로 알려진 동고산성에 대한 8차례의 발굴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동고산성을 국가 사적지로 승격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영재 기자

### 덕진경찰, 불법사금융 근절 캠페인 전개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는 최근 가정주부, 대학생,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8일 전주시의버스터미널 및 전통시장을 찾아 투자사기 및 불법사금융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유사수신행위와 투자사기 범죄 유형을 1대1 맨투맨 형식으로 설명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박성구 경찰서장은 "저금리 대환대출 등 미끼로 접근하면 불법 사금융 단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 전북도 의용소방대, AI 방지위해 '구슬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전국 최대 양계 집단지인 김제시 용지면과 김제 금구, 정읍 고부면 일대를 찾아 거점소독시설이나 이동통제초소 등 방역초소, 방역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용지면 남성 의용소방대 황호복

대원은 "이웃 주민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닭들이 살처분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더 큰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AI조기종식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의용소방대는 올해 첫 발생한 구제역 확산방지도 일선에서 나서 구제역 종식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김민근 기자

### 전북경찰,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지난 27일 5층 대회의실에서 조희현 청장 주재로 2017년도 전북경찰의 정책방향과 계획을 공유하는 '17년 전북청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북지역은 내년 FIFA U-20월드컵과 WTF 무주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와 대통령 선거등의 정치일정이 겹쳐있는 가운데 이러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남기고 평온하고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조희현 청장은 특히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현장을 한층 활력있게'라는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이어 2017년 1월 31일까지 민생안전 특별치안대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조희현 청장은 "붉은 닭의 해인 2017년에도 소통하고 참여하는 든든한 생활자한 확립을 위해 전북경찰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 완산경찰서, 5대 범죄 감소 예방 대책회의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강황수)가 지난 28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관내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분석을 통한 5대 범죄 감소 및 절도 예방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올 한해 5대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시간대별, 요일별, 장소별 범죄발생을 분석하여 다각적인 범죄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치안민중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절도 등 동일수법 미증 범죄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며 범인 검거를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함께했다.

강황수 서장은 "5대 범죄 예방 및 검거를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분석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남자 유인 돈봉투 흥인 여성 달미

익산경찰서는 28일 모델로 남성을 유인한 후 돈봉투를 들고 달아난 김모씨(45·여)를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월 15일 오후2시 익산시 소재의 한 호프집에서 이모씨(63)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다가 함께 모델로 간 후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던 돈봉투를 옷에서 꺼내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